



봄 봄 봄...광양 매화마을 꽃잔치 '봄의 전령' 매화가 광양을 온통 하얗게 뒤덮었다. 휴일인 22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활짝 핀 매화 사이를 오가며 새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상의 22대 회장에 김상열 호반 회장 선출 상근부회장에 오세철씨

김상열(54·사진) (주)호반건설 회장이 제22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선출됐다.



광주상의는 지난 20일 오전 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제22대 회장과 임원진 선출을 위한 제1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80명(특별의원 10명 포함) 가운데 참석자 74명의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광주상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터뷰 14면>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창립 79주년을 맞이하는 광주상의가 지역 상공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화합과 신뢰, 창의와 도전, 변화와 혁신을 모토로 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민의 역량과 지혜를 결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보성 출신으로, 호반건설 회장과 호반장학재단 이사장, KBC 광주방송 회장,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건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광주·전남 베트남 명예총영사 등을 맡고 있다.

회장 선출에 이어 22대 부회장단으로는 양진석 (주)호원 대표이사, 임효섭 보해양조(주) 회장, 권영두 화천기공(주) 대표이사, 정원주 중흥주택 사장, 한상원 동아에스텍(주) 회장, 손병영 금호타이어 생산기술본부장, 박치영 (주)모아종합건설 회장, 송종욱 (주)광주는행 부회장 등 8명이 임명됐다. 공석이었던 상근부회장은 오세철(68) 전 금호타이어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암 환자, 무섭게 늘었다

국립암센터 연례보고서, 광주·전남 5년 새 30% 급증
광주 유방암, 전남 갑상선암·전립선암 증가폭 가장 커

광주·전남지역 암 환자 발생률이 최근 5년 사이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6대 암(위암·폐암·간암·대장암·유방암·갑상선암) 가운데 광주는 유방암이, 전남은 갑상선암의 증가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새로운 암 환자 발생률인 '조발생률'이 광주는 지난 2007년 312.5명에서 2012년엔 417명으로 5년 새 33.44%가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도 2007년 468.2명에서 584.4명(24.8%)으로 늘어났다.

광주의 조발생률은 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간암·유방암 순으로 높아 전국 수치를 동일했던 반면, 전남의 경우 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간암·기타암·전립선암·유방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대 암 중 광주에서 가장 큰 증가 폭을 나타낸 것은 유방암으로 18.9명에서 31.6명으로 무려 67.2%나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로 17.1명에서 25.4명으로 늘

어나 48.54%의 증가율을 보였다.

광주와 전남 모두 갑상선암이 6대 암 중 조발생률이 가장 높았는데, 전남은 지난 2012년 113.5명으로 5년 전 71.8명보다 58.08%나 치솟아 가장 높은 증가 폭을 보였고, 광주도 64.7명에서 97명(49.92%)으로 늘어났다.

위암의 경우도 광주는 42.4명에서 55.2명, 전남은 74.4명에서 84.7명으로 각각 30.19%와 13.84%씩 증가했다. 또 대장암은 광주가 34.2명에서 49.8명으로 45.61%나 증가해 유방암에 이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전남은 49.9명에서 38.28% 증가한 69명으로 확인됐다.

폐암은 광주가 40.88%(27.4명→38.6명)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남은 7.

58%(63.3명→68.1명)로 비교적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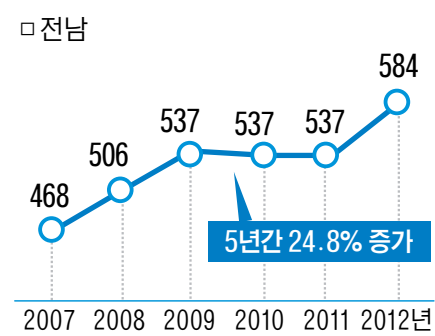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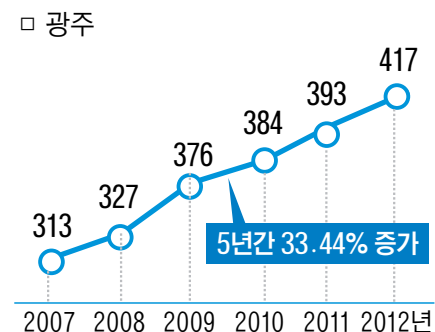
암 발생률이 전체적으로 증가 폭을 보였지만, 광주지역에선 오히려 5년 전에 비해 조발생률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간암 조발생률은 광주에선 30.2명에서 29.2명(3.31%)으로 유일하게 감소했으며, 전남의 경우도 2007년 50.1명에서 2012년 52.5명(4.79%)으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전남지역 전립선암 조발생률의 증가폭은 타지역과 비교해 6대 주요 암의 경우보다 컸다. 전남지역 전립선암 조발생률은 13.6명에서 25.5명으로 87.5%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6대 암 조발생률 전체 현황

(단위: 명/10만명)



광주U대회 기간 송정~인천공항 KTX 증편 운행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역 과정 개강
문의: 062) 605-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

정부가 오는 7월 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광주U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기간 동안 KTX 운행을 늘리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문체부 2차관, 법무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경찰청 차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KTX 운행 횟수 증편 등에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가 중앙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사

정부, 안전대책 등 적극 지원키로
25일 서울서 D-100 홍보탑 제작

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과 광주송정역 사이를 운행하는 KTX운영 횟수를 현재 1일 2회(편도 기준)에서 6회로 증편해달라는 광주시의 건의에 대해서도 "KTX 운행에 문제점이 없는 한 최대한 증편하겠다"고 강조했

다. 하지만 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남북단일팀 구성, 판문점 성화봉송, 북한 응원단 파견 등도 3대 이벤트를 적극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는 대회 D-100일인 오는 25일 서울광장에서 2015 광주U대회 홍보탑 제작식을 갖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전국 순회홍보단 출정식도 가질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해 수능 난이도 지난해 수준 출제

교육부 발표

올해 고3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를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출제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지난 17일 수능개선위원회의 난이도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수능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7면>

교육부는 특히 수학 난이도에 대해 "지난 15일 발표한 제2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의 '쉽게 이해하고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이라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게 출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향의 새봄이 옵니다.

화합의 봄, 신뢰의 봄을 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에 따뜻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희망합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이제,
지역사회의
발전과
행복에 집중!

감사합니다!
[제22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상열]

IBANI 호반건설